

엄마는 동화나라 '목소리 마술사' 인가봐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동화구연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다보면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모습을 본 엄마라면 누구나 '나도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왕이면 더욱 재미있고 실감나게 읽어 줄 수는 없을까? 이번 기회에 동화구연을 한번 배워보자.

● 동화구연 어디서 배우나

일반적인 동화구연은 어린이도서관, 복지회관, 관련 단체의 문화교실 등에서 배울 수 있다. 대부분 아이와 엄마가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 등 전문적인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동화구연 교실은 1998년부터 운영된 책동회의 동화구연 아카데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과정, 전문가과정, 지도자과정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동화구연에 대한 이론과 함께 상황에 알맞은 표현, 구연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등 실습도 한다. 또 동화구연과 연계해 '나의 주장 발표하기' 등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도 배운다. 전문가과정까지 보통 6~8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동화구연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02)3141-5504

서울 옥수동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매주 목요일 3~4세 아동과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엄마랑 동화나라' 프로그램이 있다. 동화구연과 함께 율동, 감상 발표하기 등을 배우게 된다. (02)2282-1100

서울 동대문 꿈틀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 형식의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첫 주 토요일, 책을 좋아하



아이들을 위해 동화구연을 선보이는 엄마들.

사진제공=옥수종합사회복지관

● 동화구연 무엇이 좋을까?

10개월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들 재혁이(5)와 함께 동화구연 교실에 참가한 김지민 씨(36)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발표력이 늘어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화구연은 아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 특히 대부분의 동화구연 프로그램은 책 읽기에 그치지 않고 감상발표, 주인공 표현해 보기 등 연계 수업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



은 듣기와 말하기를 함께 공부하게 되며 바른말을 습득하게 된다. 또 동화를 흥미 있는 이야기로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승아 꿈틀도서관장(36)은 "컴퓨터 게임, 비디오 등 공격적인 매체에 노출된 요즘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는 정서 함양에 좋다"며 "엄마의 마음과 감정이 담긴 목소리는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게 도와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말하기 · 듣기 능력 높고 창의력 · 정서 함양에 좋아

또 이들을 고용하는 민간업체에는 시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기업은 여성발전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2월 14일까지 업무분야별 필요인원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 가장 1천만원 용자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최고 1인당 1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구별 소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50만원)의 150%이내인 여성 가장이면 신청가능하다. (02)2274-9637

아동성폭력센터 사업자 공모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사건수사를 위한 '아동성폭력상담센터'(가칭) 사업자를 2월 23일까지 공모한다. 의료관련 기관과 비영리법인이면 응모가능하다. (02)3703-2615

NGO센터 입주 희망 단체 공모

서울여성회는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 입주 희망 단체를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책상, 책장, 의자 및 전화기 등 기본시설을 갖춘 이 센터는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02)810-5043

“우리집은 작은 불교센터”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3>

김연호 한국예총 제천시부장 가족

“일요일이면 끝나는 불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자가족이라면 사회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명예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불행을 따르도록 이끌어주세요.”

지난 1월 27일 한국예총문화단체총연합회 제천시부장에 취임한 김연호 진주동불병원장(52·충북 제천). '수행은 곧 신행'이라고 말하며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강조하는 그는 1972년 대학생활교원협회 경남지부장을 시작으로 조계종 포교사, 제천불교거사협회,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장 등 지역 불교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 왔다. 김 원장이 이처럼 불교에 안팎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가족과 함께 신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예총 제천시부장 취임식에서 기념 촬영한 김 지부장 가족.

가정법회 등 모임 자주 열어 아버지와 두 아들 대불련 동문

김 원장은 자신의 가정을 '작은 불교센터'라고 표현한다. 김 원장네 집에서는 종종 가정법회 등 크고 작은 불교모임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는 선우 제천 지역 가족 50여명은 문수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릴레이 100일기도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 1998년 50일 동안 10만배 정진을 하고도 했다. 10만배 정진을 비롯해 지금도 매일 아침예불을 거르지 않도록 김 원장을 옆에서 독려하는 가장 무서운 스승(?)은 부인 권선(50) 씨다. 불교청년회 시절에 만난 김 원장과 권 씨는 정기법회는 물론 집에서도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다.

김 원장의 두 아들 영중(26·경희대 의과대학), 영문(23·동국대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씨도 각각 의대와 불교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어린시절부터 우리는 선우 불교학생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두 사람은 김 원장의 대불련 후배이기도 하다. 특히 둘째 영문 씨는 1년 뒤 졸업과 함께 군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우리 가족은 ‘가난정신’과 ‘나눔정신’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짧 한 불이라도 소중히 여기도록 노력하고, 이번 검소합에서 얻어진 것을 이웃과 나누어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지요.”

평소에 가족과 함께 '십이조 불사공' 등 나눔정신을 실천하는 김 원장은 지난 1991년과 2002년 두 차례 국립경주박물관에 사재를 털어 모은 문화재 500여점을 기증하기도 했다. 액수로 따지자면 수십억 원이 넘는 것들이다. 그의 결정에 반대할 만도 하지만 그런 액수는 김 원장 가족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부처님 말씀처럼 준 것은 영원히 남고, 가진 것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현재 가진 것에 욕망을 느끼고 다른 이들과 함께 회향할 줄 알아야 진정한 무소유 아님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김 원장. 그는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우리 사회에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 따뜻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가족을 위해 발원했다.

한상희 기자

간(肝)이 지방간 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울림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 한 해를 열어줍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혜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사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적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점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방의령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청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범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에서 어떤 익한 중생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적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병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기어다니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불매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지않는 행동을 한다면,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응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2004학년도 봄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과정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요구분
교양 불교	불교연구개론	1	최종석	1학기	주간
	2	배상환	1학기	주간	
	3	신공순	1학기	주간	
	4	신공순	1학기	주간	
불교영역	1	원병관	2학기	주간	
	2	김경연	2학기	주간	
	3	김경연	2학기	주간	
	4	김경연	2학기	주간	
불교연구	1	심재동	2학기	주간	
	2	심재동	2학기	주간	
	3	심재동	2학기	주간	
	4	심재동	2학기	주간	
불교전문	1	김종욱	5학기	주간	
	2	김종욱	5학기	주간	
중우행정최고지도자과정	1	조기환	2학기	주간	
	2	조기환	2학기	주간	
	3	조기환	2학기	주간	
	4	조기환	2학기	주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 (불교전문교육과정은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에 한함)

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2004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접수처: 사회교육원 교학과 (학술관 1층)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원 소정양식), 사진 1매
불교전문교육과정: 주민등록등본과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각 1부 추가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02) 2260 - 3728 ~ 9 / FAX: (02) 2260 - 3730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ac.kr/~soedu

스님들만을 위한 활인 침술법 전수강좌

- 덕운스님의 활인침법을 배우시다 -

덕운스님은 30여년동안 영험하신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의 공덕(功德)」을 온세상에 펼치고자 「활인(活人)의 도(道)」를 깊이 연구하시어 많은 중생들에게 「활인법(活人法)」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온갖 병고소멸을 통해 「약사 부처님의 은덕(恩德)과 중생구제의 원(願)」을 가지고 불행(佛)에 정진하고 계시는 스님들에게 놀라운 활인의 침술법을 전하므로, 삼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약사부처님의 은덕을 대대손손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일체중생 병고소멸 활인공덕 사바하!!

강좌안내

- 강좌내용: 덕운스님의 활인 침술법(鍼術法) 전수
- 강좌기간: 2004년 3월부터(3개월간)
- 강좌대상: 활인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스님 35세 이상 ~ 50세 미만 득도 3년미만
- 모집인원: 10명에 한함 (특별교육)
- 회비: 무료
- 장소: 활인정사(活人精舍)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사당역 5분 거리)
- 문의전화: 02)3487-2311~3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시고자 합니다.

활인정사 덕운선원 주지 덕운 합장